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前 대한지리학회 회장

여수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여수음악제'

신용역이 등장한 마지막 날 공연도 만원(滿員)이었다.

음악제 대미(大尾)는 음악학교를 수료한 지역 청소년들이 KBS교향악단과 합주한 피날레 공연이었다. 주최 측은 음악제에 참가할 청소년을 지난 5월 모집했다.

여수의 도시세(勢)와 위상을 고려하면 음악제 출발은 매우 늦었다. 여수 인구 순위(2017년 1월)는 전국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 162위 중 37위다.

그런데 음악제가 탄생했다. KBS교향악단과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주관했지만 모든 경비를

여수상공회의소가 부담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음악제 산파역이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음악제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주민은 의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여수상공회의소 활약은 대단했다. 1940년 설립된 여수상공회의소는 광양만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음악제를 만든 여수상공회의소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전국에서 열리는 많은 클래식 관련 음악제는 모두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은 음악 관련 협회가 주관한다.

이 높아지고, 새로운 도시 문화와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눈치다. 이를 위해 관(官)이 아닌 민간이 나섰다.

일정한 경쟁력을 가진 국내의 주요 도시에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거버넌스가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추동하는 기관과 단체 말이다.

여수음악제는 앞으로 여수에 새로운 생동감을 계속 불어 넣을 것이다. 문제는 여수음악제가 통영과 견줄만한 음악제로 성장하느냐 여부다.

여수의 변화를 실감한다. 필자는 여수에 갈 때마다 미세한 변화를 직접 느낀다. 멋진 해변공원으로 탈바꿈한 여수엑스포역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때문이 아니다.

제1회 '여수음악제'도 마찬가지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여수음악제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다. 지역주민은 뜻밖에도 수준 높은 클래식 향연을 즐겼다.

현장칼럼



김승환

송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환절기 건강과 운동

위체력이다.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신생아 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기를 시작으로 다른 여러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엘리트 운동선수들 또한 감기에 예방에 대한 대책이 어렵다.

마라톤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의 연습량과 감기에 걸린 빈도를 비교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량의 연습을 한 집단이 연습 부족과 과도한 집단보다 감기에 대한 빈도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환절기(기온·습도 등)의 환경 인자에 대한 생물학적 저항력은 방위체력으로 중요하다. 세균, 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기능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방

알려져 있어, 운동이 감기예방이라는 측면 보다는 경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용이라는 표현이 옳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목과 코의 점막온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겨드랑이 체온은 36~37°C이지만, 직접 외부로 접촉하는 온도는 1~3°C정도 낮다. 운동을 실시하면 신체가 열을 발생시켜 온도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동 종료시점에서는 1~2°C 이상 저하해 원래의 체온으로 회복될 때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런 실재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숙지하는 것도 조난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9 구조대원들은 산악위치지표지판에 정보를 수집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체온증에 대비해 보온을 할 수 있는 옷도 준비해야 한다. 정상상 향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안전수칙을 알고 등산을 한다면 소중한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산악 조난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악위치지표지판 등 정확한 위치를 119구조대에 신속하게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 대한 방어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저온에서는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기온이 낮은 환절기와 추운겨울에 감기가 생행하는 것이다.

운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근육내의 에너지원인 글리코겐(탄수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게 된다.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열도 역시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면 글리코겐이 적었을 때 감기에 걸린 경우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안전수칙을 알고 등산을 한다면 소중한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산악 조난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악위치지표지판 등 정확한 위치를 119구조대에 신속하게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社說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확정하라

무안국제공항의 마지막 남은 정기 노선인 중국 베이징 노선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무너진 국제공항'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항공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8년 베이징 노선 취항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상하이 노선 역시 사드 보복조치로 지난 5월초 중단된 바 있다. 정기 노선이 그것도 중국에 한해 단 2편 뿐이라는 기막힌 현실에서, 이제는 이마저 모두 없어지고 전세계 공항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항 이용객 또한 빈약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우량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여수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박용회 회장의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우량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여수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박용회 회장의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수음악제는 앞으로 여수에 새로운 생동감을 계속 불어 넣을 것이다. 문제는 여수음악제가 통영과 견줄만한 음악제로 성장하느냐 여부다.

키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제공항을 살리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은 전남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 기간시설로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과거 광주고속철도 건설 당시에 광주 주민의 의견을 수용,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노선 변경을 확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인 정부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영·호남 차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와 달리 전향적으로 해법을 내기를 촉구한다.

사무장 한방병원 보험사기 뿌리뽑아야

광주지역 일부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운영난을 겪는 한방병원을 사들인 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형제들을 적발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100억원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채 적발되기도 했다.

노령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에는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어 보험사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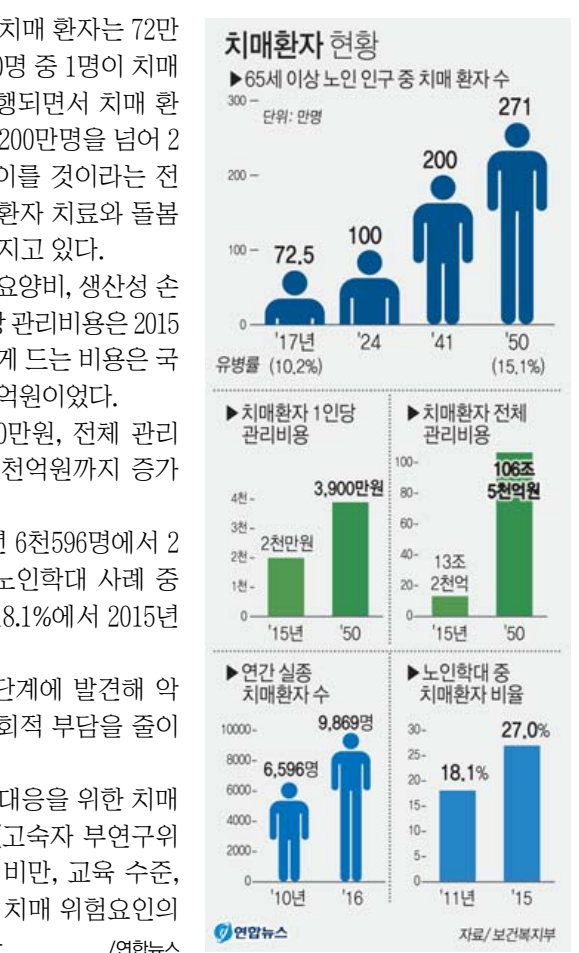
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역에서 한방병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고가의 진단·검사장비 부담이 없는데다 타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보험범죄가 의심되더라도 개원한지 얼마 안 돼 폐업하면 행정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그래픽 뉴스

“2050년 치매환자 270만명 추정...관리 비용만도 106조원”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명(유병률 10.2%)으로 추산된다.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1만명(유병률 15.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간 실증 치매환자 수 2010년 6천596명에서 2016년 9천869명으로 1.5배 증가했고, 노인학대 사례 중 피해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 2011년 18.1%에서 2015년 27%로 늘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祥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